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민간 항공사에서 2025년부터 에어택시 상용화 추진

행재정·교육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도우미' 운영
고등학생 대상 '소방 사관후보생 프로그램' 시행

도시교통 도시 상품유통 개선을 위한 '도시 물류 전략 2030' 발표

도시계획·주택 코로나19로 인해 낮은 골목길이 핫 플레이스로 부상

정보·기타 인력난 해소 목적으로 인공지능 로봇 활용 확대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아시아·아프리카〉		〈유럽〉	
뉴욕	윤규근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암스테르담	장한빛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싱가포르	이은주	베를린	신희완
샌디에이고	김민희	뉴델리	박원빈		유진경
샌프란시스코	박신아		박효택		홍남명
시카고	강기향	자카르타	박재현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올랜도	박혜진	도쿄	이선인	하노이	이희재
워싱턴 D.C.	이정근	광저우	손지현	스톡홀름	허윤희
하와이	임지연	베이징	정민욱	바르셀로나	박정수
휴스턴	이경선	상하이	문혜정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충칭	모종혁	런던	이용훈
토론토	고한나	칭다오	강경이	로마	서동화
		나이로비	한 울	피렌체	김예름
				보르도	김준광
				파리	김나래

민간 항공사에서 2025년부터 에어택시 상용화 추진

말레이시아 / 도시교통

말레이시아의 저가 항공사인 에어아시아는 동남아시아 최초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에어택시 상용화를 추진. 에어아시아는 2025년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에 자사 앱으로 예약 가능한 에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배경

- 에어택시 상용화 추진 동향
 - 에어택시로 불리는 도심항공운송수단(Urban Air Mobility, UAM)은 프로펠러와 날개를 달아 수직 이착륙하는 전기동력 비행체에 사람이 타 이동하는 교통체계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롤랜드버거(Roland Berger)의 조사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에서 운행될 에어택시는 16만 1천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이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어택시 보급률이 전체의 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2040년까지 도심항공운송수단 시장 규모가 1조 5,00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

에어아시아의 에어택시 상용화 계획

- 에어아시아를 소유한 캐피털A 그룹은 동남아시아 최초로 에어택시 상용화 계획을 추진
 - 2021년 3월 캐피털A 그룹 최고경영자 토니 페르난데스는 온라인 청년경제포럼에서 에어택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
- 2022년 2월 토니 페르난데스는 아일랜드의 항공기 임대 회사인 아볼론(Avolon)사와 수직 이착륙기 VX4를 최소 100대 임차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
 - VX4는 영국의 버티컬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 중인 전기 수직 이착륙기로, 2024년 유럽연합 항공안전국(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 EASA)의 공식 인증을 받을 계획
 - VX4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활용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헬리콥터보다 소음과 진동이 적은 것이 특징

- 1명의 조종사가 4명의 승객을 태우고 시속 200마일(322km)로 총 100마일(161km) 이상 비행 가능
- 동남아시아 전역에 에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
 - 토니 페르난데스는 항공 당국의 허가가 빠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에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
 - 에어택시가 상용화되면 2025년부터 에어아시아 자사 앱인 슈퍼앱(Super App)으로 예약 가능

동남아시아 에어택시 산업 현황

- 말레이시아 에어택시는 쿠알라룸푸르 공항과 도심을 연결
 - 쿠알라룸푸르 공항(KLIA)에서 도심까지 통상적으로 60~90분이 소요되지만, 에어아시아의 에어택시는 지상의 교통정체로부터 자유로워 17분 내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
 -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도심까지 에어택시 요금은 1인 210링깃으로, 최소 4인 요금 지불 시 이용 가능
- 싱가포르는 독일의 드론 설계회사 볼로콥터(Volocopter)와 협업해 2024년부터 에어택시 서비스 상용화 추진
 - 볼로콥터는 헬리콥터와 드론을 결합한 형태의 에어택시로 마리나베이, 센토사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
 - 볼로콥터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싱가포르 외에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
- 이브 어반 에어 모빌리티(Eve Urban Air Mobility)는 2026년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에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
 - 2021년 8월 브라질 항공기 제조업체 엠브라에르(Embraer)의 자회사 이브 어반 에어 모빌리티는 싱가포르 항공 스타트업 기업 어센트(Ascent)와 파트너십을 맺어 필리핀에 에어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발표
 - 이브 어반 에어 모빌리티는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마닐라 도심에 에어택시를 서비스하고, 마닐라와 인근 도시인 클락을 에어택시로 연결할 계획



[그림] 2025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상용화되는 에어택시

<https://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highlight/2022/04/12/airasia-takes-first-step-towards-bringing-flying-taxis-to-se-asia/>

<https://technave.com/gadget/The-AirAsia-air-taxi-fare-is-expected-to-be-below-RM210-per-person-29574.html>

<https://paultan.org/2022/02/17/airasia-to-lease-100-vertical-aerospace-flying-taxis-from-avolon-for-south-east-asia-ride-sharing-platform/>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도우미’ 운영

프랑스 파리시 / 행정정·교육

파리시는 온라인 행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구청 등에 ‘디지털 도우미’를 배치하고, 집 근처 디지털 도우미가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는 지도 서비스를 제공

디지털 소외계층 맞춤 도우미 서비스 운영

- 프랑스 중앙정부는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프랑스 디지털 도우미 서비스(Conseillers Numériques France Service)’를 운영
 - 인터넷 사이트(conseiller-numerique.gouv.fr)를 통해 집 근처의 디지털 도우미를 찾아주는 서비스도 제공
 - 도우미들은 서비스 신청자들이 지인들과 핸드폰 및 컴퓨터로 영상 통화하는 법, 일자리나 교육 프로그램 찾기, 행정 및 지역 서비스 처리 절차,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 및 인터넷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법, 인터넷과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법 등 다양한 디지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 개인 맞춤 상담 및 교육뿐만 아니라 단체 대상 교육도 제공
 - 중소기업이나 민간단체에도 행정 절차, 온라인 판매 방법, 구인 광고를 내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
 - 공공 행정서비스 시스템인 ‘프랑스 서비스(France services)’ 직원들이 디지털 도우미로 활동¹⁾
 - ‘프랑스 서비스’ 직원뿐만 아니라 집 근방의 지역 단체, 적십자, 사회 문화 센터, 환경 단체 등 다양한 곳에 소속된 약 4천 명의 디지털 도우미들이 활동 중
- 파리시에서는 구청 등의 상주 디지털 도우미들이 시민에게 도움을 제공
 - 2017년 이래 파리시는 가족수당센터, 구인구직센터, 국민보험, 파리청년센터(Mission locale de Paris) 등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시민들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는 계획을 추진

1) 프랑스 사회통합 및 지자체 통합부(Ministère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et des 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는 행정절차를 도와주는 ‘프랑스 서비스(France services)’를 운영하고 있음. 이 서비스를 제공 중인 국가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음: 내무부, 사법부, 세무서(les services des impôts), 구인구직센터(Pôle Emploi), 가족수당센터(la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AF), 국민보험(l’Assurance maladie, CNAM), 노인연금(l’Assurance Vieillesse, CNAV), 농업사회기금(la Mutualité sociale agricole, MSA), 우체국 등 9개(<https://www.cohesion-territoires.gouv.fr/france-services>)

- 프랑스 디지털 도우미 서비스를 활용해 시민들은 市 홈페이지에서 출생신고서, 결혼 증명서 등 市의 행정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 복지 사이트의 인터넷 계정을 만들고 정보 이용과 복지 신청을 하도록 권장
- 파리 10구, 11구, 13구, 14구, 17구, 18구, 19구, 20구의 구청과 파리 18구, 19구, 20구의 파리 시민 센터(Espaces parisiens pour l'insertion), 그리고 일부 市 관련 기관에서 디지털 도우미를 찾을 수 있음
- 본인의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오면 인터넷 및 디지털 용어, 이메일 발송 및 수신, 데이터 저장 및 공유, 인터넷 서핑, 행정 사이트 이용 방법 등을 현장에서 교육

정책 평가

-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행정 서비스 이용을 도와줄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인터넷망을 구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1대1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파리市 디지털 도우미 서비스의 장점



[사진] 파리 구청의 디지털 도우미 활동 (출처: www.paris.fr)

<https://www.paris.fr/pages/des-conseillers-pour-accompagner-les-publics-eloignes-du-numerique-20791>

<https://www.conseiller-numerique.gouv.fr/>

김 나 래 통신원, kim.narae@kakao.com

고등학생 대상 ‘소방 사관후보생 프로그램’ 시행

캐나다 에드먼턴시 / 행재정·교육

에드먼턴시 소방 사관후보생(Edmonton Fire Cadets) 프로그램은 관내 고등학생이 총 두 학기에 걸쳐서 학업과 병행해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이해하도록 실습 위주의 수업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각종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기술을 습득해 직업 체험의 기회와 학점 인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와 방향

- 에드먼턴시 소방 사관후보생(Edmonton Fire Cadets) 프로그램은 관내 고등학생이 직업 소방관이 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소방서의 운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이 기존 학교의 교실 수업에서 벗어나 실습 위주의 수업과의 균형을 통해 소방(消防) 활동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학생들은 화재 예방 기술 습득을 기본으로 하고 정신/신체 건강, 책임 의식, 개인적 성장, 리더십 및 팀워크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음
 -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래 소방관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지원하지만, 단순히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체험과 인명구조 기술에 대한 습득으로 직업에 대해 탐색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들도 다수

프로그램 운영 방법

- 소방 사관후보생 지원 자격
 - 만 14~18세의 청소년으로 에드먼턴과 인근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긍정적인 사고와 직업윤리를 가진 청소년을 선호
 - 두 학기의 교육기간 동안 주마다 1박 근무가 가능한 학생으로 한정
 - 소방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을 보유하고, 건강한 학생(합격 후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야간 소방훈련 학교에 올 수 있는 교통편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함



[사진] 소방 사관후보생 프로그램 현장 실습 모습

(출처: https://www.edmonton.ca/programs_services/fire_rescue/edmonton-fire-cadets)

- 선발 시기와 교육훈련 기간
 -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원서 접수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5월에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하면 9월부터 학기 시작
 - 총 두 학기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앨버타 교육 커리큘럼과 연계
 - 교육훈련은 9월에 시작해 6월에 끝나며, 총 10개월 동안 진행
 - 수업은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
 - 두 학기 동안 6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 평균 두 학기 취득 학점인 24학점의 ¼에 해당
- 학생들이 프로그램 최종 수료를 위해서는 3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완료해야 함
- 지역 가스 에너지 회사 등의 후원을 통해 학비는 대부분 충당됨
 - 학생들은 한 학기에 100달러의 수수료만 내면 되고, 대부분 지역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운영
 - 학생들에게는 교복과 필요한 학습자료 등이 무료로 제공
- 소방 사관후보생의 주요 실습 내용
 - 기본 소방 기술 및 구조 기술
 - 기본적인 화재 관련 과학과 위험물질에 대한 이론 교육
 - 소방 호스 및 노즐, 소화기, 지상 사다리 사용법 교육
 - 심폐소생술 및 응급 구조 자격증 취득

- 자급식 호흡 장치(SCBA) 사용법 교육
- 개인 보호 장비(PPE)의 종류 및 착용법 교육
- 통제된 상황에서 실제 화재 진압
- 차량 구출 도구를 사용해 자동차 절단
- 인명 수색
- 로프를 이용한 구조 기술을 사용해 건물 탈출 훈련 시행
- 이외에 취업에 필요한 이력서 작성법 및 면접 기술 교육

https://www.edmonton.ca/programs_services/fire_rescue/edmonton-fire-cadets

<https://www.edmonton.ca/sites/default/files/public-files/documents/FireRescueServicesCadetBrochure.pdf>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도시 상품유통 개선을 위한 ‘도시 물류 전략 2030’ 발표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 도시교통

바르셀로나시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점점 증가하는 온라인 상거래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 상품유통이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도시 상품유통 개선을 위한 ‘도시 물류 전략 2030’ 계획을 발표

배경

- 도시 물류(DUM; Distribucio Urbana de Mercaderies)란 상품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상품 공급망 중에서 도시 지역에서 상품과 소비자가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물류 활동을 의미.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 기업 대 기업: 상품을 상업 시설에 유통
 - 기업 대 소비자: 상품을 소비자에게 유통
 - 사용자 및 관련 시설을 위한 서비스: 폐기물 수집, 수리 및 운반
- 도시 물류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활동과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도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며, 도시의 경제, 사회 활동뿐만 아니라 이동성, 환경, 공공공간에도 영향을 미침
-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이루어지는 판매 과정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유통 모델에, 전자 상거래의 출현으로 소비자에서 생산자까지 이루어지는 반송 과정(Extra mile, 엑스트라 마일)이 추가로 형성되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반송 과정의 물류 서비스 수요에 대한 증가가 가속화됨
- 바르셀로나의 도시 물류 차량은 도시 전체 개인 차량의 23%를 차지하며, 반송 과정에서 파생된 새로운 물류 활동은 도시 내 물류 차량 이용을 증가시켰으므로써 바르셀로나 이동성 정책(PMU 2024)이 목표로 하는 도시 내 개인 차량 이용 25% 감소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됨
-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도시 물류가 도시의 일상생활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 물류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물류를 촉진하며,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도시 물류 이니셔티브를 지원

-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바르셀로나의 도시 물류가 주로 민간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市와 민간이 협력하여 도시 물류 정책을 수립할 예정
 - 이 정책의 로드맵에 해당하는 ‘도시 물류 전략 2030’(EDUM 2030; Estrategia municipal de la Distribucio Urbana de Mercaderies 2030)을 2022년 2월 15일에 발표

목적

- 도시 물류의 개선을 통해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의 개선뿐 아니라 교통 혼잡, 대기 오염 및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도시의 상업 활동 촉진, 기업의 경쟁력 제고, 도시 물류의 효율성 향상, 환경적 외부 효과 감소, 도시 물류 전용 공공공간 축소, 도시 물류 관련 사고 비율 감소

‘도시 물류 전략 2030’의 7개 전략 축과 이에 따른 첫 번째 개선 계획

- 공공 도로의 주차공간을 보다 유연하게 제공하고, 공공 도로의 주차 관리를 개선
 - 중대형 물류 운송 차량을 위한 시간을 정해 이 시간대에 배송에 집중하도록 하고, 그 외 시간에는 자전거 물류를 장려
 - 야간 물류 운송 차량의 신규 허가 취득을 용이하게 해 야간 도시 상품유통을 확대
 - 정해진 시간대별로 하역 작업 공간, 입주민 주차 공간, 차량 순환용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용도 차선을 새롭게 설치하고, 이와 동일한 취지로 하역 작업이 가능한 100개의 다용도 광장을 설치



[사진] 시립 공공시장 및 주차장에 택배 보관함 설치 및 택배 보관함 사용 활성화 프로모션 진행

- 공공 도로 이외에 상품의 배달 및 수령을 위한 공간 설치 허용 및 확대(택배 보관함 사용과 도시 물류 센터 설치를 장려)
 - 민간의 도시 물류 센터(CDUM)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확대
 - 주요 시립 주차장 대상 도시 물류 센터 및 택배 보관함 설치 시범사업 확대 실시
 - 빈 건물 수를 줄이고, 공간에 대한 지속 가능한 점유를 촉진하기 위한 '건물의 지상층 활성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건물 1층에 도시 물류 센터 설치
 - 택배 보관함 사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진행
- 도시 물류 차량의 친환경화 및 자전거 물류 촉진
 - 시립 공공시장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시립 공공시장의 배달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경쟁력 및 지속 가능성 향상
 - 도시 물류 차량의 친환경화 추진



[사진] 물류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물류 차량의 사각지대에 신호판을 부착

- 도시 물류와 관련된 교통사고를 줄여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 0명'을 목표로 하는 바르셀로나의 포괄적인 도로 안전 전략 달성을 목표로 하고, 도시 상품유통 차량으로 인한 혼잡을 최소화
 - 물류 차량의 사각지대에 신호판 부착 및 첨단 운전 지원 시스템 설치 확대
- 도시에 통합된 물류단지를 대도시 지역 단위에 조성 및 확대
- 도시 물류 활동을 평가하고 도시 물류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이해 관계자(시민, 시설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 도시 물류 관측소를 만들어 도시 물류 종사자 및 운영자의 지식과 인식 수준을 향상
 - 도시 물류 관측소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도시 물류 데이터 센터 개설
 - 도시 물류 전략 2030의 범위 내에서 수집 및 생성된 모든 정보를 통합하는 데이터 센터를 개설하여 도시 물류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 공개

정책 평가

- 긍정적 측면
 - 하역 공간이 부족할 경우 주차 위반 사례 및 상품 도난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하역 공간 추가 설치가 필요
- 비판적 측면
 - 야간에 중대형 물류 운송 차량을 집중시키는 정책은 상점의 기존 영업시간 변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이웃과의 갈등이 예상. 또한, 지역별 기반 시설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형 물류 차량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동일한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
 - 전기차량 구입 비용과 현실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유통업체들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
 - 하역 공간을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택배 보관함 중에서 주차장 혹은 시립 공공시장에 위치한 택배 보관함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를 활성화하자는 의견 제기

<https://ajuntament.barcelona.cat/agenda2030/ca/actualitat/impulsem-una-distribucio-de-mercaderies-mes-eficient-sostenible-i-segura-a-la-ciutat-1145319>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안전한 물류 촉진, 바르셀로나 시청, 2022년 2월 15일)

<https://www.barcelona.cat/mobilitat/es/servicios/movilidad-comercial/la-distribucion-urbana-de-mercancias-dum> (도시 물류, 바르셀로나 시청)

진 광 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코로나19로 인해 낡은 골목길이 핫 플레이스로 부상

중국 충칭市 / 도시계획·주택

코로나19 사태로 중국당국이 자국민의 입출국을 엄격히 통제하고 도시봉쇄와 재택근무를 수시로 시행하면서, 시민들은 특색 있는 주변 골목길에 눈을 돌리게 됐음. 그 중 룡타거리의 썬웨이길은 주민위원회가 낙후된 골목길을 재생하는 사업과 맞물려, 서구적이고 트렌디한 분위기의 점포가 줄지어 영업하면서 2030 세대가 즐겨 찾는 핫 플레이스로 발돋움했음

낡고 오래된 골목길이 핫하게 된 배경

- 2020년부터 충칭(重慶)시에서 낡고 오래된 골목길이 새롭게 탈바꿈하여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남. 그 배경 중 하나는 출·입국이 엄격히 통제되고 도시봉쇄와 재택근무가 일상화된 코로나19 사태임
- 현재 중국은 전 세계 경제력 상위 10위권 국가 중 유일하게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자국민과 외국인의 입출국을 엄격히 통제
 -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 이후 자국민과 외국인, 백신의 접종 여부 등을 가리지 않고, 중국 입국 시 2주 지정시설 격리+7일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해왔음. 2022년 5월 7일부터는 10일 지정시설 격리+7일 자가 격리로 약간 완화
 - 공안당국은 5월 12일 자국민의 불필요한 출국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출·입국 관련 증서의 발급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공표
- 오미크론이 중국에서도 확산되면서 2021년 12월 기준 인구 1,316만 명의 시안(西安)시, 2022년 1월 기준 인구 1,386만 명의 톈진(天津)시, 3월 기준 인구 2,489만 명의 상하이(上海)시 등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가 잇달아 한 달여에서 두 달 넘게 전면 혹은 부분 봉쇄에 들어갔음
 -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이라도 나오는 다른 도시의 區에서는 재택근무 실시
 - 대부분 성(省)의 지방정부는 주민이 다른 省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가기 48시간 혹은 24시간 전에 자비로 PCR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이 나와야만 교통편과 숙박 예약이 가능하도록 했기에, 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

2030 세대에게 핫하게 된 룡타거리의 썬웨이길

- 룡타거리(龍塔街道)¹⁾의 썬웨이길(紫薇路)은 2019년까지 주변 주민들이 이용했던 식당, 가게, 자동차수리점 등이 있었던 300m 길이의 평범한 골목길이었음

- 2020년 6월부터 서구식 레스토랑 Glass&Plate, 유럽식 커피전문점 Truman, 서구 복고풍 술집 Other River 등이 식당과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잇달아 문을 열면서 2030 세대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핫 플레이스로 떠오름
 - 2021년에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각국의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들어서면서 ‘충청의 작은 방콕’이라는 명성을 얻게 됨. 여기에 한국요리 및 일본요리 식당도 문을 열어 인기를 끌고 있음



[사진] 영어나 외국어로 표기된 프웨이길 점포 외벽과 간판의 상호 (출처: 충청요핀)

- 현재 프웨이길에는 각기 다른 인테리어와 영업 테마를 갖춘 20여 개의 식당, 커피전문점, 패션숍, 술집 등이 운영되면서, 충청市에서 가장 서구적이고 트렌디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젊은이들의 거리로 발돋움
- 월평균 약 6만 명의 외지 관광객이 프웨이길을 찾을 정도로 충청市의 새로운 명소로 부상. 찾았던 이들이 각종 SNS로 “프웨이길에서 서구의 소비문화와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다”며 사진과 동영상을 퍼뜨렸기 때문
 - 평소 프웨이길을 찾는 충청 시민들이 훨씬 많아, 주요 식당은 평일에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식사를 하기 위해 1~2시간을 기다려야 함

1) 중국 도시에서 ‘거리(街道)’는 區 다음인 행정구획임. 거리를 관할하는 ‘거리주민위원회(街道居民委員會)’라는 행정조직이 있는데, 거리주민위원회가 관리하는 지역 범위가 서울市的 서너 주민센터가 관할하는 것만큼 넓음. 최근에는 거리주민위원회에서 ‘거주지 주민위원회(社區居民委員會)’로 명칭이 바뀌고 있음

- 쑤웨이길이 핫하게 된 또 다른 배경에는 룡타거리주민위원회가 골목길 정비와 재생을 위해 가화(佳華)부동산관리유한회사와 ‘쑤웨이길상업프로젝트(紫薇路商業項目)’를 진행했기 때문
 - 본래 쑤웨이길에서 가장 많은 점포는 자동차수리점이었는데, 무질서한 주차와 수리하는 과정에서 나는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의 원성이 컸음
 - 대부분의 쑤웨이길 점포가 2019년 말부터 2021년까지 룡타거리주민위원회와 임대 계약이 끝나는 점에 착안하여, 2019년 초 룡타거리주민위원회는 가화부동산관리유한회사와 손잡고 골목길 정비와 재생 사업에 나섬
 - 룡타거리주민위원회는 보행로와 가로수를 깨끗이 정비했고, 넓은 주차장을 새로 마련했으며,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해 젊은 세대의 창업과 입주를 유인
 - 쑤웨이길에 새로 문을 연 점포의 주인은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으로, 외국에서 살았거나 해외여행 경험이 풍부하여 서구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 점포 외벽과 간판에 반드시 중국어 상호를 표기해야 하는 행정규제도 없애, 쑤웨이길의 점포는 외벽과 간판의 상호를 영어나 외국어로만 표기

점차 늘어나는 ‘제2, 제3의 쑤웨이길’

- 룡타거리 쑤웨이길의 성공 사례에 자극받아 충칭市 내 여러 區정부와 거리주민위원회가 제2, 제3의 쑤웨이길을 만들기 위해서 나서고 있음
 - 올해 들어 떠오르는 다이자샹(戴家巷)은 절벽 아래 조성된 골목길로, 쑤웨이길과 차별화해서 중국의 전통을 강조하는 식당, 찻집, 카페, 패션숍 등이 문을 열고 있음
 - 이는 중국에서 해외나 다른 지방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면서 도심 속의 골목길에서 외국 분위기를 느끼며 소비하려는 젊은 세대의 욕구와 더불어 숨겨졌던 골목길의 개성과 문화를 새롭게 발견하는 사회적 조류가 크게 작용

https://m.thepaper.cn/baijiahao_17926808

<https://www.163.com/dy/article/H628HPV6053469PT.html>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7781560

<https://baijiahao.baidu.com/s?id=1713233167254970074>

http://www.cqybyq.gov.cn/ybw_content/2021-08/25/content_10216329.htm

인력난 해소 목적으로 인공지능 로봇 활용 확대

말레이시아 / 정보·기타

외국인 노동자에게 많이 의존해온 말레이시아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로봇공학 기술 활용을 확대할 계획. 이를 위해 ‘국가 로봇공학 로드맵’을 발표하고, 로봇 개발 사업을 발굴 및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할 예정

배경

- 비숙련 외국인 노동력에 많이 의존
 - 팜유(palm油) 업계
 - 인력난을 겪는 말레이시아 팜유 업계 근로자의 70%는 외국인
 -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팜유를 많이 생산하는 수출국
 - 하지만 외화 유출 등의 문제로 인력 운용에 있어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의 지속
 - 서비스 업계
 - 2019년 8월 말 기준 말레이시아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는 총 199만 명으로 제조업(35%), 건설업(22%), 서비스업(15%) 등에 종사
 -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 크게 의존하는 서비스 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로 이주노동자 유입이 제한
 - 이에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로봇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

‘국가 로봇공학 로드맵’ 발표

- 이스마일 사비르 야콥 말레이시아 총리는 로봇공학 기술 사용을 확대해 국가의 생산성을 증대하겠다고 선언
 - 이를 위해 2022년 2월 로봇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는 국가 로봇공학 로드맵(National Robotics Roadmap, NRR)을 발표
 - 2019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산업용 로봇 밀도(직원 1만 명당 로봇 사용 대수)는 55대
 - 국가 로봇공학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이를 195대로 늘리는 것이 목표
 - 로봇 개발 사업을 발굴 및 감독하는 ‘마이디지털 태스크포스(MyDigital Catalytic Projects Task Force)’ 설치 계획도 발표

- 마이디지털 태스크포스는 5G 네트워크와 스마트 시티 구축을 앞세워 스마트 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

산업용 로봇 개발 및 사용 현황

-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humanoid robot) 개발
 - 2019년 설립된 현지 로봇 제조기업 로보프르너르(Robopreneur)사는 말레이시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담(Advanced Development Autonomous Machine; Adam) 출시
- 최초의 바닥 청소 로봇 개발
 - 말레이시아 기업인 아이디어스파크 로보틱스(Ideasparq Robotics)는 2020년 말레이시아 최초의 바닥 청소가 가능한 자율주행 로봇(autonomous robot) 룸바(Roomba) 개발
- 서빙 로봇 대중화
 - 2016년 사라왁 음식점 CH 프리미어 레스토랑이 서빙 로봇을 첫 도입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고 외국인 노동자가 줄어들자 프랜차이즈 음식점도 서빙 로봇 도입
 - 말레이시아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 페낭 카유 나시 칸다르(Penang Kayu Nasi Kandar)는 전국 10개 매장에 각각 서빙 로봇 3대를 배치할 예정



[사진] 말레이시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담



[사진] 최초의 바닥 청소 로봇 룸바

<https://www.thestar.com.my/tech/tech-news/2022/04/25/these-malaysian-companies-are-on-the-road-to-robotics>
<https://themalaysianreserve.com/2022/02/18/pm-new-digital-plans-to-boost-robotic-tech-usage-in-msia/>
<https://www.nst.com.my/news/government-public-policy/2022/02/772313/malaysia-become-regional-leader-digital-economy-2030>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527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2년 6월 27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